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氣轉化 過程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大學院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¹

白裕相¹ *

A Study on Gi(氣) Conversion in 『Somun(素問)·Eumyang-eungsangdaeron(陰陽應象大論)』

Baik You-sang¹ *

¹Dept.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In this study, we try to solve some issues of Gi(氣) conversion in 『Somun(素問)·Eumyang-eungsangdaeron(陰陽應象大論)』, through comparison of related annotations. Through this analysis we can again review the cognition of movement and changes of Gi(氣),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in Oriental medicine, so to have a chance to criticize a view of the world in western science, excessively leaned to material viewpoint.

In the process of Gi conversion, the creation of Jeong(精), one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is the last goal, but physical element for example Mi(味, taste) or Hyeong(形, shape) could not be directly converted to Jeong(精) without Gihwa(氣化, vaporization) and circulation of Gi(氣). And who controls conversion to Jeong(精) is human spirit, that joins with Jeonggi(精氣), it has been kept in and come from Jeong(精). That spirit based on Jeong manages the whole process of Gi conversion.

Key Words : Gi(氣), Mi(味), Hyeong(形), Jeong(精), Hwa(化), Gihwa(氣化), conversion, Somun(素問), Eumyang-eungsangdaeron(陰陽應象大論)

I. 序論

韓醫學은 그 淵源이 오래되었으며 역사적, 철학적 배경이 깊고 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學者 및 醫家들이 이를 공부하고 실행하면서 자신들의 소견

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그 주요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특징적인 면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바로 氣의 醫學이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氣는 宇宙를 구성하는 동시에 宇宙의 生命力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變化하고 運動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또한 氣의 運動 變化 規律에서 벗어날 수 없다. 『黃帝內經』을 쓴 古人들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人間과 宇宙의 이러한 本質을 꿰뚫어 보았으며 이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人體를

* 교신저자 :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E-mail : baikys@khu.ac.kr Tel : 02-961-0326.
접수일(2008년 12월 10일), 수정일(2009년 2월 8일),
게재확정일(2009년 2월 9일)

구성하는 氣, 味, 形, 精의 요소들이 서로 변화하면서 탈바꿈하는 과정 즉, 氣의 轉化 과정에 대하여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형식을 갖추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간략하고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讀者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점이 많았으며, 역대 注家들의 주장도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일관되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나오는 氣의 轉化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注釋을 비교하여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韓醫學이 가지고 있는 氣의 運動 變化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짚어봄으로써, 현대 과학이 가지고 있는 지나치게 물질적인 세계관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本論

1. 宇宙와 元氣

韓醫學에서 氣는 精, 氣, 神, 血, 津液 등 인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지만 넓은 개념으로는 宇宙를 채우고 萬物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氣로 이루어져있다고 할 수 있다. 『說文解字』에서는 “氣, 雲氣也. 象形.”이라 하여 구름이 피어나는 모습을 본뜬 것이라 하였는데¹⁾, 이와 같이 뚜렷한 형체가 아닌 희미한 기운의 상태로서 宇宙 本然의 바탕이 되는데, 한편 이것이 굳어지면 物의 形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宇宙의 바탕을 氣 一元論의으로 보았을 때 이를 元氣 또는 原氣라 하는데 『春秋繁露·重政』에서 “元者, 爲萬物之本.”²⁾이라 하였고, 『公羊傳解詁』에서도 “元者, 氣也. 無形以起, 有形以分, 造起天地, 天地之始也.”³⁾라 하여 元氣를 설명하고 있다. 元氣가 本源으로부터 氣化되어 나와 運行하는 것이 運動 變化의 중

심이며 그것이 변화를 거쳐 形으로 굳어지는 것은 그 다음의 과정이다.

이와 같이 元氣가 흩어지고 모이는 것에 따라 萬物이 生長收藏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莊子·知北游』에서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⁴⁾라 하였고, 『孟子』에서도 “氣, 體之充也.”⁵⁾라 하여 사람을 구성하고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元氣가 萬物 중에서도 靈物인 사람을 낳을 때 가장 精微로운 氣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를 精氣라 하였다. 『管子·內業』에서 “精也者, 氣之精者也.”, “人之生也, 天出其精, 地出其形, 合此以爲人.”라 하였다⁶⁾. 즉 精氣는 氣 중에서도 새로운 氣를 만들어 轉化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와서 인간에 내재된 氣로서 元氣가 처음 출발한 宇宙 本然의 天元처럼 우리 몸의 가장 깊은 자리에 위치하여 생명활동을 일으키는 원초적인 바탕이 된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도 “故天有精, 地有形, 天有八紀, 地有五里, 故能爲萬物之父母, 清陽上天, 濁陰歸地.”⁷⁾라 하여 精과 形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內經』의 元氣와 氣化 思想

『內經』에서 元氣에 대한 언급은 주로 『素問陰陽應象大論』과 運氣七篇 등에 나온다. 특히 天地 陰陽의 升降 운동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上下의 升降 운동이 바로 氣化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運氣七篇의 경우에는 宇宙論과 天文學 관련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으므로 이의 내용 중에서 氣化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素問·天元紀大論』에서 “臣積考太始天元冊文曰, 太虛寥廓, 肇基化元, 萬物資始, 五運終天, 布氣眞靈, 摠統坤元, 九星懸朗, 七曜周旋, 曰陰曰陽, 曰柔曰剛, 幽顯既位, 寒暑弛張, 生生化化, 品物咸章.”⁸⁾라 하여 宇宙의 근원자

1) 許慎.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20.
2) 鍾肇鵬 主編. 春秋繁露校釋. 山東. 山東友誼出版社. 1994. p.255.
3) 國悟石 主編. 四庫全書精華(8)公羊傳注疏.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5. p.16.

4) 안동립 譯註. 莊子. 서울. 현암사. 1993. p.534.
5) 金赫濟 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明文堂. 1983. p.125.
6) 戴望. 諸子集成(7)管子. 河北. 河北人民出版社. 1992. p.270.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5.

리에서부터 元氣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萬物이 生化하여 드러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宇宙의 근원으로부터 風寒暑濕燥火의 六氣 형태로 도달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미세한 風의 형태로 萬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靈樞賊風』에서는 “氣所從來者微，視之不見，聽之不聞，故似鬼神.”⁹⁾이라 하여 마치 귀신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흐름을 따라서 만물에 변화를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늘이 氣를 보내면 땅에서는 만물을 생하여 形을 이루게 한다. 『素問天元紀大論』에서 “在天爲氣，在地成形，形氣相感，而化生萬物矣.”¹⁰⁾라 하여 하늘이 내리는 氣와 땅에서 만들어지는 形 사이의 감응으로 인하여 만물이 化生한다고 하였다. 『素問寶命全形論』에서도 “人生有形，不離陰陽，天地合氣，別爲九野，分爲四時，月有大小，日有短長，萬物並至，不可勝量.”¹¹⁾라고 하여 天地合氣를 말하였는데 이러한 天地의 氣交가 바로 陰陽 運動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氣의 흐름은 陰의 運動을 거쳐서 形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陽의 運動을 거쳐서 氣화한다.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余聞氣合而有形，因變以正名.”¹²⁾이라 하여 氣가 합쳐져서 形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였고,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陽化氣，陰成形”¹³⁾이라 하여 陽의 運動에 의하여 다시 氣화한다고 하였는데, 결국 陰陽의 升降 運動이 바로 氣화의 과정임을 말해주고 있다¹⁴⁾. 氣와 形이 서로 轉化할 때 上下로 벌어지는 힘은 바로 元氣의 清濁 차이로부터 오는데, 같은 편에서 “清陽爲天，濁陰爲地.”라 하여 清濁의 성질에 의하여 上下의 극단이 만들어짐을

설명하였다. 특히 清陽한 기운이 위로 상승하는 것이 上下로 場을 벌어지게 하는 주된 원동력이 되는데 『素問生氣通天論』에서 “蒼天之氣，清淨則志意治，順之則陽氣固，雖有賊邪弗能害也.”¹⁵⁾라 하였고,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도 “天氣，清淨光明者也，藏德不止，故不下也.”¹⁶⁾라 하여 푸른 하늘처럼 맑은 陽氣가 위로 上升하여 氣化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上下로 場이 형성되는 것을 바로 天地의 역할과 같다고 보았는데, 여기서 天地는 宇宙 自然의 天地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구성되고 나서 上下의 極點을 잡아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極點이 잡힌 이후에 그 사이에서 氣交가 벌어지고 이러한 氣交를 통하여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帝曰，何謂氣交。岐伯曰，上下之位，氣交之中，人之居也.”¹⁷⁾라 하여 上下가 자리 잡은 후에 그 가운데에서 氣交가 일어나고 氣交의 결과 사람이 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素問寶命全形論』에서도 “夫人生於地，懸命於天，天地合氣，命之曰人。人能應四時者，天地爲之父母.”¹⁸⁾라 하여 天地合氣로 인하여 사람이 命을 받아 태어나는 것을 말하였다.

이와 같이 宇宙의 元氣에서 시작하여 天地에 변화를 일으키고, 다시 天地가 清濁의 성질에 의하여 극점을 형성한 후에 그 場이 가지고 있는 運動變化의 힘을 바탕으로 氣의 교류가 일어나고 그 결과 萬物이 생하는데, 이러한 원리는 萬物이 생한 후에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夫物之生，從於化，物之極，由乎變，變化之相薄，成敗之所由也.”¹⁹⁾라 하여 萬物이 살아가는 것이 化에 달려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넓은 의미에서 氣의 轉化 곧 氣化 과정이라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3.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53.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3.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7.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6.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

14) 趙博. 氣一元論與『內經』氣化理論形成的探討. 陝西中醫. 2007. 28(1). p.72.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44.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7.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44.

할 수 있다.

氣化라는 말은 『素問靈蘭秘典論』에 처음 나온다.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²⁰⁾라 하여 膀胱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水液代謝와 氣化를 연결시켜 후대에 이를 腎의 “蒸騰氣化”라 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三焦의 水道 개념과 더불어 原氣의 발산이라는 주제 속에서 확장된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三焦는 『內經』에서 주로 水道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몸의 수액대사를 관장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일부 少陽相火의 病理와 관련되었으나, 『難經』에서 三焦를 “原氣之別使”로 규정하면서²¹⁾ 본격적으로 原氣의 유포와 관련된 개념을 포괄하게 되었다. 膀胱의 氣化 개념도 이를 바탕으로 후대에 더욱 확대되었다. 宋代에 철학자인 張載가 元氣의 설을 발전시켰으며 이에 따라 金元時代의 四大家들은 인체 精, 氣, 神, 血, 津液 등의 상호 轉化에 대하여 새로운 개념을 세워나갔다. 예를 들어 李東垣의 경우도 脾胃之氣를 一身의 原氣로 삼아 우리 몸 전체의 생명활동을 주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후 朱丹溪의 相火論, 陽有餘陰不足論 및 張介賓의 命門學說 등도 모두 氣化學說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이러한 보편적인 氣化思想에 대한 언급은 이미 『素問五常政大論』에서 “氣始而生化, 氣散而有形, 氣布而蕃育, 氣終而象變, 其致一也.”²²⁾라 하여 모든 생명현상이 氣의 運行에 관련되어 있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氣化의 對象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氣와 形의 轉化 관계도 있으나, 우리 몸을 자양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으로서 五氣와 五味를 대표적으로 들어 설명하였다. 『素問六節藏象論』에서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五氣入鼻, 藏於心肺, 上使五色脩明, 音聲能彰,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²³⁾라 하여 五氣와 五味

를, 上七竅를 소통시키고 五臟을 기르며 津液을 생성하여 神이 스스로 生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 다룬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氣轉化의 對象을 더욱 구체화하여 氣, 味, 精, 形 네 가지 요소로서 설명하고 있다.

3.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氣轉化에 대한 해석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먼저 陰陽 운동에 따라 元氣 또는 原氣가 轉化하여 좁은 의미의 氣와 形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氣의 升降出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였다.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은 陰陽의 중요한 변화구획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이며, 이어서 “故積陽爲天, 積陰爲地, 陰靜陽躁, 陽生陰長, 陽殺陰藏, 陽化氣 陰成形, 寒極生熱, 熱極生寒, 寒氣生濁, 熱氣生清, 清氣在下則生飧泄, 濁氣在上則生脹脹, 此陰陽反作, 病之逆從也.”²⁴⁾라 하여, 陰陽 운동에 의하여 上下의 清濁이 나누어지고 清氣와 濁氣가 上下로 逆從하는 과정에서 寒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병이 나타남을 말하였다. 하나의 생명체가 生長收藏하는 과정도 결국에는 生에서 출발하여 氣化가 일어나 形이 자라났다가 다시 수렴되어 藏하는 것에 불과하여, 여기에도 陰陽 운동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陽生陰長, 陽殺陰藏”이란 陽運動에 의하여 氣化가 촉발되고 陰運動에 의하여 形이 길러져서 커지며, 다시 陽運動에 의하여 氣의 清濁이 분리되어 수렴되기 시작하고 陰運動에 의하여 精氣만이 갈무리되어 안에 潛藏되는 일련의 생명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故清陽爲天, 濁陰爲地, 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雨, 雨出地氣, 雲出天氣, 故清陽出上竅, 濁陰出下竅, 清陽發腠理, 濁陰走五藏, 清陽實四支, 濁陰歸六府.”²⁵⁾라 하여 우리 몸에서의 氣化 升降 운동을 地氣가 상승하여 구름을 형성하고 天氣가 다시 비가 되어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4.

21) 尹暢烈, 金容辰.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民出版社. 2002. p.883.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57.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6.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

내려오는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生長收藏의 대순환과 마찬가지로 항상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氣化 運行 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雨出地氣’라는 의미는 구름이 상승하여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地氣를 속에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편 비가 다시 순환하여 지상에 내린 이후에 萬物을 생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雲出天氣’의 의미는 구름이 피어올라 淸陽의 기운이 상승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한편 구름이 비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위로 天氣를 받아들이게 되므로 天氣의 성질을 받아 출한다고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火를 바탕으로 한 氣化 과정을 거쳐 가장 위의 極點까지 發散이 되었다가 金氣와 비슷한 하늘의 淸명한 기운이 肅降과 收斂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精氣가 응축되고 갈무리되어 최종적으로 水 안에 잠장된다. 이때에 火의 기운이 충분하여 極點의 끝까지 發散되는 것이 중요하며 精氣를 수렴시킬 수 있는 차가운 冷氣와 潛藏하는 견고한 水氣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 이어서 우리 몸의 주요 구성요소인 氣, 味, 精, 形의 상호 轉化 規律를 설명함으로써 생명현상의 본질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리, 병리적인 영향까지 설명하고 있다. 轉化 과정에 이어서 氣味와 壯火, 少火를 설명한 뒷부분은 일견 앞부분과 서로 무관한 것 같지만 氣의 轉化 과정에 味の 작용과 火의 작용 등이 중요한 원동력임 됄을 강조하고 있어서 서로 관련이 깊다. 해당 원문은 아래와 같다.

【原文】

水爲陰，火爲陽，陽爲氣，陰爲味。味歸形，形歸氣，氣歸精，精歸化，精食氣，形食味，化生精，氣生形。味傷形，氣傷精，精化爲氣，氣傷於味。陰味出下竅，陽氣出上竅。味厚者爲陰，薄爲陰之陽。氣厚者爲陽，薄爲陽之陰。味厚則泄，薄則通。氣薄則發泄，厚則發熱。壯火之氣衰，少火之氣壯。壯火食氣，氣食少火。壯火散氣，少火生氣。氣味，辛甘發散爲陽，酸苦通泄爲陰。²⁶⁾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

【水爲陰，火爲陽，陽爲氣，陰爲味】

여기서 水火는 밖으로 陰陽 운동을 일으키는 시작의 象을 나타낸다. 같은 편에서 “水火者，陰陽의 徵兆”라 하여 水火를 變化의 徵兆라고 하였는데, 五行의 원리를 바탕으로 上下의 극점을 잡는 동시에 陰陽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보았다. 象이란 變化의 원리를 속에 담고 있어서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陰陽 운동을 일으키는 시작 즉, 徵兆라고 표현한 것이다. 王冰은 “水寒而靜，故爲陰，火熱而躁，故爲陽。”²⁷⁾이라 하여 寒熱과 動靜으로 설명하였으나, 張介賓은 “水潤下而寒，故爲陰，火炎上而熱，故爲陽，水火者，則陰陽之徵兆，陰陽者，則水火之性情。”²⁸⁾이라 하여 『書經洪範』에서 말한 水火가 가지고 있는 五行의 성질인 潤下와 炎上을 바탕으로 하여 陰陽 운동의 徵兆임을 설명하였다. 陰陽이 水火의 性情이라 표현한 것도 水火의 작용이 밖으로 性情처럼 드러난 것이 곧 陰陽이라는 의미이다. 『靈素節注類篇治法準則總論陰陽表裏治法』에서도 “水火者，陰陽之徵兆也，寒熱者，陰陽之本性，氣味者，陰陽之變化。”²⁹⁾라고 寒熱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陰陽 변화로 드러나는 것이 곧 氣味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水火가 五行 중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 이러한 五行 순환의 결과에 의하여 외부적으로는 陰陽 운동이 드러나게 된다. 이때 陰陽 운동의 주체는 氣이고 一元的이므로 元氣라고 할 수 있다.

陰陽 각각의 운동에 의하여 元氣는 淸濁으로 나누어지고 결국 氣와 味로 귀결된다. 元氣의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氣나 形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五行 순환이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淸濁이 분별되고 氣化와 凝固 등의 작용에 의하여 氣와 形으로 귀착된다. 여기서 귀착된 氣는 애초의 元氣와는 개념이 다르며 이미 運動 變化를 시작하여 외부적으로 힘을 가지기 시작한 거친 氣이다. 이때의 氣가 바로 좁은 의미의 氣라 할 수 있다. 陽運動에 의해 氣가 생기고 陰運動에 의해 味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

27)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釋. 黃帝內經素問王冰注. 大田. 周民出版社. 2003. p.98.

28)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36.

29)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413.

王氷은 “氣惟散布，故陽爲之，味曰從形，故陰爲之.”³⁰⁾라 하여 원래 氣味가 각각의 성질대로 쫓아가서 생겨난다고 보았다. 즉, 모든 事物이 형성될 때에 크게 보면 氣와 味の 구성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味란 곧 形을 대표하는 속성이다. 그러므로 이미 形이 형성된 이후에는 존재하는 모든 事物들은 자체로 氣味를 가지고 있다. 氣味와 陰陽이 각각 비슷한 성질대로 합하여 생성되고 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이러한 친화력이 陰陽 운동의 기본 動力이 됨을 알 수 있다.

氣에 대비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形인데 여기서 形이라 하지 않고 味라고 말한 이유는, 이어지는 뒤의 문장에 나오는 形은 구체적인 사람의 몸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즉 아직 우리 몸으로 들어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외부의 물질이므로 味라고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味는 사람으로 들어와서 쓰이는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모든 事物의 形을 대표하는 의미로 확장되어 물질 그 자체를 뜻하게 되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개체를 형성하고 있는 質料를 말하며 이는 일반적인 속성이므로 곧 모든 事物은 味를 가지게 된다. 단, 아직 사람 몸의 形體로 만들어지지 전 단계이므로 나에게 전적으로 속한 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味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轉化되는 과정에서 氣 또는 氣血로 만들어지게 된다.

陰陽 운동에 따라 나타나는 氣와 味를 대비해 보았을 때 陰陽 모두 우리 몸에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氣와 味の 관계에서도 서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속에서 모든 사물들이 공평하게 그 속성을 가지게 된다. 氣味の 厚薄이 비록 나타난다 할지라도 陰陽 운동의 편차가 크지 않으므로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味歸形，形歸氣，氣歸精，精歸化】

王氷은 “形食味，故味歸形，氣養形，故形歸氣，精食氣，故氣歸精，化生精，故精歸化.”³¹⁾라 하여 歸의 과

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뒤 문구에 나오는 氣生形과 化生精으로 인하여 形이 氣로 돌아가고 精이 化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이것은 자신을 生하는 쪽으로 돌아간다고 해석한 것으로 앞부분 味歸形，氣歸精에서 말하는 歸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문장에서 “精食氣，形食味”라고 하여 形은 味를 먹고 精은 氣를 먹는다고 하였으므로 이때의 歸는 氣의 轉化 과정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지만, 形歸氣와 精歸化에 대한 王氷의 설명으로는 歸의 방향이 이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歸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氣가 轉化되는 과정의 의미와, 자신을 生하는 主宰者에 의지한다는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네 구절은 이어지는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歸字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張介賓은 이에 대하여 “歸，依投也。五味生精血以成形，故味歸於形，形之存亡，由氣之聚散，故形歸於氣，氣者，眞氣也 所受於天，與穀氣并而充身者也，人身精血，由氣而化，故氣歸於精.”³²⁾이라 하였는데, 形歸氣에 대해서는 氣가 聚散함으로써 形이 存亡하므로 氣로 돌아간다고 하여 王氷과 비슷한 해석을 하였지만, 氣歸精에서는 반대로 氣가 변화하여 精血이 만들어지므로 氣歸精이라 한다고 하였다.

歸字에 대하여 일관적인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서 歸는 모두 氣가 轉化되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즉, 味，形，氣，精，化로 이어지는 일련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歸의 의미는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고향이란 생명이 출발한 처음 자리라고 할 수 있다. 歸는 萬物이 태어날 때 先天의 精에서 氣化되어 퍼졌던 것이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자연스러움을 말한다. 또한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것으로서 스스로 의도하지 않아도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과 같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면 先天의 자리에서부터 元氣가 기화되어 形이 자라고 陰陽 운동을 시작하던 것이 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서 『管子·內業』에서 “精也者，氣之精者也.”，“人之生也，天出其精，地出其形，合此以爲人.”라 하였는데, 이때 精

30)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釋. 黃帝內經素問王氷注. 大田. 周民出版社. 2003. p.98.

31)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釋. 黃帝內經素問王氷注. 大田. 周民出版社. 2003. p.99.

32)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36.

氣에서부터 사람이 태어나서 形을 형성하게 되었으므로 精 또는 精氣가 가장 순수한 氣로서 先天 始原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味에서부터 시작하여 形, 氣, 精의 순서로 氣가 轉化되어 결국에는 精으로 귀결되는 것이 바로 다시 先天의 세계로 돌아가는 방향이며,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서 精이 만들어지니 이 精은 先天의 속성을 담고 있는 동시에 또다시 다음 생애의 씨앗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생명의 출발점이란 『素問陰陽離合論』에서 말한 太衝의 꼭짓점에 해당하며 사람 몸으로 보면 그 자리는 곧 丹田이요 命門이라고 할 수 있다. 精이 갈무리되는 자리는 인체의 가장 깊은 곳이라 할 수 있으며 다시 이곳에서 氣化되어 精氣가 나오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즉, 형태적으로 보면 先天에서부터 生하여 몸이 열리기 이전에 중심축이 되었던 太衝이 여기에 해당하며³³⁾, 氣의 순환 입장에서 보면 精氣가 모였다가 出入하는 곳이니 丹田이나 命門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합해보면 味에서부터 시작된 氣 轉化의 과정은 결국 精을 만드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으며 이것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회귀하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形의 개념은 筋骨肌肉의 形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形體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속을 채우고 있는 津液과 血까지 포함해야 한다. 味, 形, 氣, 精의 전체적인 구성 속에서 津液이나 血은 바로 形에 속하기 때문이다.

精歸化에 대해서도 張介賓은 “由精而化氣, 由氣而化神, 是水爲萬化之原, 故精歸於化.”³⁴⁾라 하여 精에서부터 氣나 神이 변화되어 나오는 것을 물의 根源에 비유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중요한 轉化의 과정이다. 氣의 轉化가 精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귀결되었다가 다시 氣化가 일어나 精氣로 生化하고 여기에 神도 붙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삶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이다. 단, 精에서 다시 氣化되어 나오는 과정을 똑같이 歸라고 표현한 것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욕구에 의하여 神의 작용이 精에 부가되어

나타나는 과정이므로 역시 고유의 자리로 향하는 목적의 결과로 본 것이다.

『靈素節注類篇』에서는 “味歸形者, 形質由氣味而成也, 形歸氣者, 形由氣以生長, 由氣以消化也, 氣歸精者, 氣由靜以翕聚, 無精則氣渙散, 是陽根于陰也, 精歸化者, 精由氣以生化, 無氣則精不成, 是陰根于陽也.”³⁵⁾라 하여, 形이 氣로 돌아가는 것은 氣로 인하여 生長하고 또 消化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消化는 氣의 유행을 통하여 形이 사라지는 것이니 氣 轉化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氣가 形을 生長하는 것 뿐 아니라 氣의 유행으로 形이 消化되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사실상 形에서 氣로 轉化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氣가 精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氣가 精에 의해 수렴된다고 하였는데, 비록 수렴되어 精이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수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陽이 陰에 뿌리를 둔다는 것도 陰에 의해 수렴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陽氣도 궁극적으로는 陰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精이 化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注家들은 氣의 生化 작용에 의하여 精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化生精이란 말이 다음 구절에 나오므로 이와 같이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氣의 生化작용에 의하여 精이 만들어진다면 氣生精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앞에 氣生形이 나오므로 그것과는 다른 기전의 ‘氣化’ 개념을 따로 정해야 한다. 또한 化生精이란 표현에 앞서서 같은 의미로 精歸化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歸에 대한 일련의 문구 형식상으로도 잘 맞지 않는다. 즉, 精歸化와 化生精의 표현이 상충되며, 精歸化가 氣歸精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역시 중복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靈素節注類篇』에서는 단지 氣가 모이는 것을 氣歸精으로 보았는지도 모른다. 또한 氣가 다른 것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주체가 되어 精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므로 化生精의 化가 단순한 氣化 과정이 아니라면 精歸化의 化도 일반적인 氣의 生化 과정이 아니라 精 자체가 氣化하여 精氣로 바뀌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3)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150.

34)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36.

35)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413.

이상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味에서부터 만들어진 形에서 바로 精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氣化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水穀의 精微가 만들어져서 津液, 血, 營氣 등의 형태로 만들어졌다가 그것이 곧바로 精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氣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氣化란 가장 맑은 氣로 化하였다가 運化를 거쳐서 精으로 수렴되는 것을 말하니,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故清陽爲天, 濁陰爲地, 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雨, 雨出地氣, 雲出天氣.”라 설명한, 地氣가 구름으로 올라갔다 다시 비로 내려오는 과정과 유사하다. 또한 『素問經脈別論』에서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脈氣流經, 經氣歸於肺, 肺朝百脈, 輸精於皮毛. 毛脈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留於四藏, 氣歸於權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³⁶⁾라고 하여 가장 表部の 皮毛로 氣가 퍼져서 運行하는 과정에서 合精을 하여 다시 수렴하여 들어오고 여기에 神이 붙어서 四臟에서 활동하게 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과정들의 공통점은 氣化가 일어난 후에 반드시 收斂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도 “天氣清淨光明者也, 藏德不止, 故不下也. 天明則日月不明, 邪害空竅, 陽氣者閉塞, 地氣者冒明, 雲霧不精則上應白露不下, 交通不表, 萬物命故不施, 不施則名木多死. 惡氣不發, 風雨不節, 白露不下則菀蘖不榮, 賊風數至, 暴雨數起, 天地四時不相保, 與道相失則未央絕滅.”³⁷⁾이라 하여 雲雨가 氣가 上下로 交通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이며, 이러한 上下의 氣化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에 雲雨가 精微롭지 못하게 되며 이에 氣가 어지러워져서 邪氣가 침범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歸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인위적 思維나 욕구가 아닌 天地 萬物의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을 쫓아서 일체의 氣가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氣轉化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精을 흡하여 갈무리하는 것이라면 이 중에서 氣歸精과 精歸化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氣歸精은 좁은 의미의 氣血, 津液 등의 形質이 반드시 上下의 陰陽 운동을 통하여 氣化과정을 거쳐야 精으로 轉化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精歸化는 비록 이미 갈무리된 精에서부터 다시 氣化하여 나왔지만 이때에 生化한 精氣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예를 들면 다시 精을 만들어 갈무리하는 데에 관여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소모되는 氣血과는 달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五味와 天氣로부터 精, 氣, 血, 津液의 구성요소를 만드는 과정을 味歸形, 精食氣, 形食味 등으로 표현하고 精, 氣, 血, 津液 간의 轉化과정을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 化生精, 氣生形 등으로 보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³⁸⁾³⁹⁾ 단순히 食字를 외부로부터 水穀을 들어오는 과정으로 본 결과이며 내부 요소들 간의 轉化과정을 더 세분하여 구별해 보아야 한다.

【精食氣, 形食味】

여기서 食은 먹고 살아간다는 의미로 능동적인 삶의 욕구를 말한다. 즉, 생명의 주체인 自我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歸가 개인의 욕구가 아니라 天地宇宙의 자연스런 흐름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왜냐하면 精이나 形은 陰運動으로 인하여 굳어진 것으로 속에 개인적 삶의 욕구를 담고 있다. 形의 욕구는 現生을 살기 위함이며 精의 욕구는 來生을 살기 위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精은 꼭 氣를 먹어야 하며, 形은 꼭 味를 먹어야 한다는 점이다. 精이 味를 먹거나 形이 氣를 먹을 수는 없다. 形은 味를 同類로 느끼고 精은 氣를 同類로 느끼기 때문이다. 形과 味는 모두 陰에 속하여 同類로 느끼는 것은 당연하나, 精이 氣를 同類로 느끼는 이유는 精이 비록 水의 기운 속에 潛藏되어 있으나 그 속에 수렴된 주체는 바로 精化된 陽氣이기 때문이다. “陽殺陰藏”의 개념과 같이 陽氣가 金氣에 의하여 精化되고 수렴되어 精으로 갈무리되므로 精은 근본적으로 精化된 陽氣의 속성을 함께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6.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

38) 于勇. 中醫“氣化”淺議. 陝西中醫. 2008. 29(3). p.319.

39) 林齊鳴, 虞學軍. 黃帝內經中的氣化思想. 四川中醫. 2003. 21(7). p.23.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精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氣에 대해 친화감을 느끼고 그것을 먹으려 한다. 물론 먹는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바로 精이나 形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味가 形으로 변하는 과정은 외부로부터 물질이 들어와서 처음 나의 것으로 轉化되는 과정이므로 많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며, 氣에서 精으로 전화되는 과정도 오히려 이보다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필요로 한다. 이 문구에서는 단지 재료의 역할을 하는 氣와 味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으나,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바로 어떠한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재료를 바탕으로 가공하는 데는 특별한 노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 대하여 王氷은 注釋에서 “氣化則精生, 味化則形長”⁴⁰⁾이라고 하여 당연히 味歸形, 氣歸精의 다른 표현으로 보았으며, 張介賓도 “食如子食母乳之義. 氣歸精, 故精食氣, 味歸形, 故形食味.”⁴¹⁾라고 하였다. 『靈素節注類篇』에서는 “精食氣者, 精能翕氣而使固密也, 形食味者, 形資于味而能充旺也.”⁴²⁾라 하여 精이 氣를 받아서 견고해지는 것과 形이 味の 도움을 받아서 왕성해진다고 해석하였다. 이것도 역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轉化의 과정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나 근본적으로 食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化生精, 氣生形】

精이나 形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욕구를 가지고 재료를 먹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가공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精을 만드는 데는 化가 주체가 되며 形을 만드는 데는 氣가 주체가 된다고 하였다. 化는 앞에서 살펴본 데로 精이 生化하여 생겨난 精氣로 볼 수 있는데 이 精氣가 다시 자신의 精을 만드는 과정을 주재한다는 것이다. 精氣는 氣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精과는 성격이 다르다. 氣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움직여서 운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운행할 수 있어야 차원 높은 轉化의 과정을

주도할 수 있다. 바로 氣機가 運化하는 과정에서 질적인 轉化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앞에서의 食이 생명체 자신의 욕구가 드러난 것이라면 여기서 生의 개념은 생명체가 선천적으로 품부 받은 창조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재생산해내는 과정이므로 매우 차원 높고 어려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精을 생하는 化와 形을 생하는 氣가 모두 氣의 일종이라면, 실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化 즉 精氣는 이미 氣로부터 精化를 거친 후에 精이 되었다가 다시 生化된 氣이며, 形을 만드는 氣는 아직 精化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氣이다. 물론 味를 形으로 轉化시키는 과정도 매우 어려운 과정이므로 여기에도 精氣가 관여해야 한다. 五臟六腑에 모두 精이 있어서 水穀을 받아들여 轉化시키는 데에 조금씩 관여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氣生形이라 표현한 이유는 化生精의 化 개념과 차별하여 설명한 결과이다. 化는 생명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차원 높은 작업을 수행하므로 氣를 재료로 하여 精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요약하면, 形에서 轉化된 氣가 비록 일부 精氣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바로 이전 단계인 味에서 形으로 轉化되는 과정을 주재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精에서부터 生化된 精氣가 바로 이전 단계인 氣에서 精으로 轉化되는 과정을 주재한다.

王氷은 化生精에 대하여 “精微之液, 惟血化而成形, 質之有資, 氣行營立, 故斯二者, 各奉生乎”⁴³⁾라 하여 단순히 氣血의 운행에 의하여 精과 形이 만들어진다고 보았으나, 張介賓은 “萬物化生, 必從精始, 故化生精. 前言精歸化者, 言未化之前, 由精爲化也, 此言火生精者, 言既化之後, 由化生精也.”⁴⁴⁾라 하여 精生成의 前後를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氣에서 精으로 化하는 과정과 精에 精氣가 化하여 만물을 다시 化生하는 과정은 다르다는 것이다. 精이 다시 氣化하여 精氣로 化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靈素節注類篇』에서는 “化生精者, 味得氣化而後生精, 氣生形者, 氣必先生而後形者.”⁴⁵⁾라 하여 味가 精으로 가는

40)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釋. 黃帝內經素問王氷注. 大田. 周民出版社. 2003. p.99.

41)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36.

42)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413.

43)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釋. 黃帝內經素問王氷注. 大田. 周民出版社. 2003. p.99.

44)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36.

과정과, 氣가 形을 生하는 과정을 말하였는데, 이 문구에 形, 氣, 精의 개념만 있고 味의 개념이 없으므로 味가 精으로 간다고 해석한 것이다.

化의 의미 속에는 변화를 만들어 창조를 이루어낸다는 뜻이 담겨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轉化 과정에 모두 관여할 수 있다. 즉 味에서 形으로, 形에서 氣로, 氣에서 精으로, 精에서 化로 전화되는 과정에 모두 조금씩 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氣로부터 精을 생성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化生精이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化의 창조력은 또한 神의 작용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구 生의 본질은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력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여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歸는 天地自然의 자연스런 흐름이요, 食은 생명의 욕구이지만, 生은 실제로 轉化를 실행함으로써 실제적인 삶을 창조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化生精, 氣生形이라고 말할 반면에 形에서 氣로 轉化되는 과정은 形生氣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味에서 形으로 轉化가 일어나거나 氣에서 精으로 轉化가 일어나는 것은 창조적인 과정인데 비하여 少火 또는 相火의 氣化 작용에 의하여⁴⁶⁾ 形에서 氣로 轉化되는 과정은 새로운 창조 과정이라기보다는 形을 소모하여 分化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앞 조문과 합하여 食과 生의 의미를 바탕으로 인간의 생리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는 병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味傷形, 氣傷精】

이것은 재료가 문제되어 손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물론 精과 形을 만드는 주체인 化나 氣가 잘못 운행하여 손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여기서 생략하고 味와 氣에 대해서만 말한 이유는 재료에 의한 문제가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張介賓은 “味既歸形, 而味有不節, 必及傷形, 氣既歸精, 而氣有失調, 必反傷精.”⁴⁷⁾이라 하여 味歸形, 氣歸精의 과정에 의하여 味와 氣가 손상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精化爲氣, 氣傷於味】

이것은 精이 化하여 氣 즉 精氣로 되었을 때 그 精氣가 바로 味로부터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味는 氣轉化的 출발점으로 精氣까지 오는데 많은 轉化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직접적으로 精氣를 손상시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므로 여기서 味가 精氣를 손상시키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氣화된 精氣가 味에 의하여 손상을 받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전체 문장에서 나오지 않은 인간의 요소 중에서 神이 있다. 실제로 精에 神이 붙고 精氣가 활동할 때 神과 함께 하게 되는데 이러한 精과 神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바로 味로부터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재료에 의한 손상은 앞에서 바로 언급하였으나 인간의 가장 차원 높은 활동인 精神의 활동이 손상 받는 경우는 이와 다르게 가장 물질적인 味로부터 온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精이 神과 합하여 작용을 할 경우에 無形の 가장 맑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와 반대로 탁하고 가장 물질에 가까운 味가 이를 방해하여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精神이 가장 맑은 상태에서 활동할 때에 味에 마음이 끌려서 먹으려고 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생기게 되면 이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味는 특별히 질이 좋지 않은 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味 자체를 의미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과 精神이 상하게 되는 가장 최종 단계이다.

張介賓의 주석을 보면, “精化爲氣, 謂元氣由精而化也. 珠玉集曰‘水是三才之祖, 精爲元炁之根’其義卽此.

45)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413.

46) 구체적인 火의 종류로 少火를 든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壯火, 少火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相火를 예로 든 이유는 相火가 주로 下焦에서 氣化 작용을 일으켜 氣를 發散하는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相火가 形에서 氣로 轉化하는 과정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味에서 形으로 轉化할 때는 그 시작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며 氣에서 精으로 歸할 때에도 氣를 精化하여 陽氣만을 수렴하는 陽殺의 작용에도 관여한다. 또한 精에서 氣化하여 精氣로 化하는 과정에도 相火가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여기에서 血이나 津液을 포괄하는 形으로부터 氣로 전화하는 과정에 주로 相火가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47)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36.

然上文既云‘氣歸精’是氣生精也，而此又曰‘精化氣’是精生氣也，二者似乎相反，而不知此正精氣互根之妙，以應上文天地雲雨之義也。夫陽化氣即雲之類，陰成形即雨之類，雨乃不生於地，而降於天之雲，氣歸精也，雲乃不出於天，而升於地之氣，精化為氣也。人身精氣，全是如此，故氣聚則精盈，精盈則氣盛，精氣充而形自強矣。帝所以先舉雲雨為言者，正欲示人，以精氣升降之如此耳。”⁴⁸⁾라 하였다. 精으로부터 氣化되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위 문장의 雲雨에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升降 운동 과정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氣傷於味에 대해서는 “上文曰味傷形則未有形傷而氣不傷者，如云味過於酸，肝氣以津，脾氣乃絕之類，是皆味傷氣也”라 하여 단순히 肝氣가 動하여 脾氣가 끊어져 味에 상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陰味出下竅，陽氣出上竅。味厚者為陰，薄為陰之陽。氣厚者為陽，薄為陽之陰。味厚則泄，薄則通。氣薄則發泄，厚則發熱】

위의 氣轉化 과정의 출발점인 味와 그 味에 결합되어 있는 氣의 특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아래 문장과 더불어 形의 재료가 되는 味 그리고, 形과 精을 매개하는 氣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氣化 과정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아래의 壯火, 少火 부분에서 다시 하고 있다.

味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은 味の 氣味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味가 形으로 轉化될 때 味가 가지고 있는 氣味 각각의 성질에 의하여 다르게 歸屬하여 받아들이고, 그것을 轉化하는 과정에서도 氣味 편차에 의하여 다른 작용이 나타남을 설명하였다. 泄, 通, 發泄, 發熱은 단지 本草의 藥性を 표현하고는 있지만 味를 水穀 전체의 의미로 확대하여 본다면 이러한 네 가지 과정을 통하여 味에서부터 形(津液, 氣血)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壯火之氣衰，少火之氣壯。壯火食氣，氣食少火。壯火散氣，少火生氣】

이 부분은 앞의 味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氣化의

작용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앞의 설명 중에서 氣는 形으로부터 轉化되는데 이 과정에 火의 작용이 있고 이는 形과 精이 만들어지는 창조 과정과는 다르다고 말하였다. 또한 氣는 精을 생성하는 재료로 쓰이기도 하며 처음에 味에서 形을 창조하는 데에도 관여한다고 하였다. 氣의 형태로 나오는 또 하나의 요소는 精에서 化하여 나오는 精氣이다. 이러한 形에서 氣로 전화되거나 精에서부터 精氣가 氣化되는 과정에 모두 火가 관여한다.

『素問直解』에서는 “壯火，亢盛之火，即相火也，少火，和緩之火，即君火也。”⁴⁹⁾라 하여 壯火와 少火를 각각 相火와 君火에 대비하였다. 相火가 실제 火熱을 다스리며 妄動하기 쉽다는 면에서는 壯火에 해당하고 君火는 쉽게 妄動하지 않으므로 少火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相火를 생명현상 전체를 다스리는 火라고 볼 경우에는 少火가 氣를 生化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것이 곧 정상적인 相火이고, 壯火는 氣를 衰하게 하므로 오히려 相火가 妄動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壯火와 少火의 특성을 대비하여 설명하였는데, 少火는 천천히 연소되는 불이며 壯火는 강하고 빠르게 타는 火이다. 천천히 연소해야 하는 이유는 산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효율성을 조절하는 데에는 최종적으로 神이 관여한다. 또한 精으로부터 氣化되어 나오는 것이므로 精의 원천이 어떠한가도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形에서부터 氣化되어 나오는 氣라면 形質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形 또는 精에 의하여 氣化의 속도가 조절되고 질적인 차이도 발생한다. 만약 少火에 의하여 가장 순수한 상태로 氣化가 이루어지면 안정적으로 생명력이 발현할 수 있고 여기에 神이 붙어서 높은 창조력이 발휘된다. 그러므로 비록 少火가 연소 과정이 하나이지만 오히려 味, 形, 氣, 精 사이의 轉化 과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생명력을 다양하게 되므로 少火生氣라고 표현한 것이다. 반면에 壯火는 情志의 불안정과 精, 形質(氣血, 津液)의 부족 또는 質의 손상에 기인하여 소모적으로 급하게 타버리는 불을 말하는데 생명력을 만들어내기보다는 精氣만을 소모함으로

48)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p.36-37.

49) 高世栻. 黃帝素問直解. 浙江. 浙江書局. 1888. p.29.

써 쇠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보면 앞에서 설명한 味, 形, 氣, 精 사이의 氣轉化 과정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化 또는 精化의 원천이 바로 少火에 있음을 다시 설명한 것이다. 壯火는 氣를 소모할 뿐 여러 요소들을 轉化시키지 못하므로 단지 消耗한다[食, 식]라고 하였고, 少火는 결과적으로 氣[元氣]를 창조해내므로 氣는 少火에 의해 삶을 살아간다[食, 사]고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壯火는 氣를 퍼뜨려 없애고 少火를 氣를 창조해낸다.

【氣味, 辛甘發散爲陽, 酸苦通泄爲陰】

味 또는 氣味の 특성을 氣의 轉化에 따른 陰陽論으로 설명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陰陽論은 五行의 五味 배속과는 다르고 氣의 흐름에 대한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 이유는 象을 바탕으로 하는 五行 배속에 국한하지 않고 氣의 형태로 運化되고 轉化되는 면을 중시하여 氣味를 바라본 것이다. 때문에 앞 문장에 이어서 氣味の 陰陽 속성을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三陰三陽의 象을 통하여 味를 파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⁵⁰). 酸味와 苦味는 五行 중 木과 火의 단계에 속하여 厥陰과 少陰의 속성과 같이 氣化를 바탕으로 陰形이 자라는 단계에 있는 味이며, 甘味와 辛味는 太陰부터 形을 채우고 少陽, 陽明, 太陽으로 이어져 다시 陽氣를 안으로 수렴하는 단계에 있는 味라고 할 수 있다. 鹹味는 陰陽의 속성으로 분별하기 힘든 味에 속한다.

III. 考察 및 結論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氣轉化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서로 모순이 되는 듯한 표현들이 있으나 여러 注家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精歸化라 하여 精이 化로 轉化한다고 하였으나 다시 化生精이라 하여 化가 精을 만든다고 하여 반대의 설명처럼 느껴지지만, 歸字의 의미를 해석하였을 때 宇宙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

가는 것을 말하므로 생명체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精을 氣化하여 精氣를 운행시키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며, 化生精이란 이러한 氣化 과정을 거친 精氣가 다시 氣를 수렴하여 精을 갈무리하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다는 의미이다.

앞부분은 水火의 象에서부터 陰陽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陰陽 운동에 의하여 元氣가 分化되어 氣와 味로 나누어지며 그것이 생명체 속에서 升降 出入을 하는 과정 중에서 味, 形, 氣, 精, 化의 요소들이 서로 轉化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뒷부분에서는 이러한 轉化 과정 중에서 味와 氣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 清濁厚薄에 대하여 말하였고 이어서 이러한 전체적인 轉化 과정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는 생명력 즉, 少火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味, 形, 氣, 精, 化의 相互 轉化 과정에서 우선 天地宇宙의 先天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歸의 개념과 그 방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다음으로 각 개체의 능동적인 삶의 욕구가 드러나는 食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즉, 形과 精은 내부에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능동적으로 味와 氣를 받아들여려고 한다. 이러한 食의 결과만으로 轉化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생이라 하였다. 우선 氣가 味를 재료로 하여 形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의 과정인데 이때의 形은 筋骨肌肉의 形體 뿐만 아니라 血, 津液, 精微 등을 포괄한다. 氣를 재료로 精을 만들어내는 것도 창조의 과정인데 가장 어려운 과정이므로 이때에는 精에서부터 氣化하여 가장 순수하게 精化된 精氣가 핵심적으로 관여한다. 이에 비하여 形에서 氣로 轉化되는 과정을 생이라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少火, 相火 등에 의하여 形質이 소모되면서 氣가 生化하여 운행하는 과정이므로 특별히 새로운 창조의 과정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少火生氣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相火는 形歸氣의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轉化 과정에 관여 하지만 여기서는 形에서 氣로 轉化하는 과정을

50) 白裕相. 五味와 三陰三陽의 관계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4). pp.8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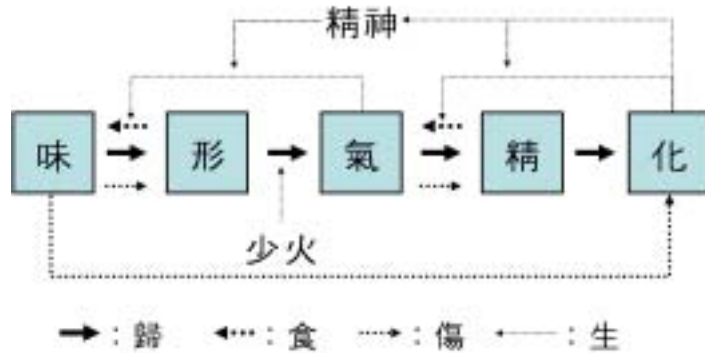


그림 1.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氣轉化 過程

위주로 相火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少火의 개념을 확장해서 본다면 精에서 氣化하여 精氣로 化하는 과정에도 작용하게 된다.

또한 氣와 味가 각각 精, 形의 재료가 되므로 氣味가 혼탁해지면 병리적으로 손상을 주게 된다. 그리고 精에서부터 氣化한 精氣가 神과 결합하여 고차원의 생명활동을 수행할 때에 다시 味에 의하여 손상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味가 가장 응축된 물질이므로 無形의 精神 활동이 이에 가장 방해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氣化의 원동력이 되는 火에 대한 언급에서는, 壯火에 대비하여 少火가 생명력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少火도 火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록 氣化를 통하여 氣를 소모시키기는 하지만, 神의 통제 속에서 精의 氣化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가장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연소를 시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陽氣가 精으로 응축되어 수렴된다. 즉, 氣化하여 일을 수행함으로써 氣가 소모되는 과정이기는 하나 생명력의 원천인 少火의 작용에 의하여 오히려 精을 만들어 갈무리하게 되는 것으로 생명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氣의 轉化 과정에서 精의 生成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精을 生成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味나 形에서 직접 轉化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氣化하여 運行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현대 과학적인 물리적 화학적 변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어느 한 물질

적 성분이 반응을 일으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無形의 氣로 轉化된 이후에 이것이 升降出入의 運動을 통하여 發散과 收斂을 거쳤을 때 비로소 精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精을 생성하는 과정을 주재하는 주체는 바로 이미 潛藏되어 있었던 精에서부터 氣化하여 여기에 神이 함께 붙어서 작용하는 精神이며, 이 精神이 다시 精을 만들고 우리 몸의 전체 氣化 과정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다.

參考文獻

<논문>

1. 林齊鳴, 虞學軍. 黃帝內經中的氣化思想. 四川中醫. 2003. 21(7). p.23.
2. 于勇. 中醫“氣化”淺議. 陝西中醫. 2008. 29(3). p.319.
3. 趙博. 氣一元論與內經氣化理論形成的探討. 陝西中醫. 2007. 28(1). p.72.
4. 白裕相. 五味와 三陰三陽의 관계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4). pp.81-90.

<단행본>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 16, 23, 25, 34, 36, 86, 97, 233, 244, 257.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53.
3.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194.
4. 金赫濟校閱. 孟子集註(上). 서울. 明文堂. 1983. p.125.
5. 尹暢烈, 金容辰.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民出版社. 2002. p.883.
6. 許愼.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20.
7. 鍾肇鵬 主編. 春秋繁露校釋. 濟南. 山東友誼出版社. 1994. p.255.
8. 國悟石 主編. 四庫全書精華(8)公羊傳注疏.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5. p.16.
9. 안동립 譯註. 莊子. 서울. 현암사. 1993. p.534.
10. 戴望. 諸子集成(7)管子.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2. p.270.
11.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釋. 黃帝內經素問王冰注. 大田. 周民出版社. 2003. pp.98-99.
12.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p.36-37.
13. 章楠. 靈素節注類編.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413.
14. 高世栻. 黃帝素問直解. 杭州. 浙江書局. 1888. p.29.
15.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150.